

월요광장

가족보다 친구가 좋다는 자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경 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이부터 대학생활을 하는 자녀까지도 친구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은 매우 큼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생활에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좋아하던 자녀가 어느 날 문득, 모든 일을 가족보다는 친구와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친구와 보내게 되면서 자녀는 가족과 함께 지내기보다 친구와 지내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고 친구를 가족과 같은 존재, 심지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발달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이후의 생활에서는 친구의 영향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녀의 친구들이 어떤지를 알게 되면 자녀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을 만큼 자녀와 그 친구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닮아가기에 아이의 친구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친구 사귀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은 물론 친구와 함께 생각하고 감정을 공유하기에 친구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없거나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면 오는 외로움은 부모님이 해결해 줄 수 없으며 가족이 채워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친구가 있어야만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때문에 친한 친구를 절실하게 바랍니다.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모님은 자녀가 학교에 가는 이유를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학생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지 물었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운동경기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불행한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자녀는 ‘친구 없이’는 학교생활은 물론 모든 면에서 잘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가족보다 친구가 더 소중한다고 생각하는

발달특성을 충분히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의 친구에 대해 가장 즐겨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자녀의 행동이 좋지 않을 때는 “우리 아이가 친구를 좀 잘못 사귀 것 같아요”, “우리 애는 참 괜찮은 아이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더니...” 라고 이야기 합니다. 어느 부모님도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에게 나쁜 친구가 되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집 아이가 나쁜 친구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십수년 동안 자녀를 계속 지켜보았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행동에는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혈육으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문제는 자녀의 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자녀에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친구와 함께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소통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자기 친구들을 감싸고 변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친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만 아이들

은 오래 집단 나름의 원칙에 따라 단결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비난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구 문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와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도 아이의 친구들과 친해진다면 더욱 좋습니다. 단지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온다고 해서 아이들의 대화에 끼여들거나 시선이 닿는 범위와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친구들끼리 시간을 보장해준다면 아이들은 손님으로서 배려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좋은 친구와 건전하게 어울리며 우정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친구를 문제 삼기보다는 평소애 자녀가 친구와 함께 다니며 지켜야 할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도 기준이나 원칙을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공유하고 함께 의논해 정하는 형식을 지킨다면 자녀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줄 것입니다.

베스트보다 유니크한 콘텐츠로 성장하는 지역신문 되길



김 경 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우리나라가 산업화 된지 반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산업전반의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에는 큰 변동이 없어, 여전히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기업이다. 대기업의 숫자는 감소가 없고, 중견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오히려 대기업은 내부 계열사를 중심으로 더욱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랜 전통을 가진 대기업들도 존재하지만, 아마존, 구글 등과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창업해서 글로벌 대기업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의존하고, 환상에 빠져 성장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와 유대인의 벤

처 생태계를 제대로 배워,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기업 생태계의 출발은 창업기업들로, ‘실빠가 배려되고 도전이 장려되는’ 벤처문화를 통해 재도약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제2·3세의 세계적인 대기업은 벤처기업 그리고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 보다 유니크 생태계가 시급한 이유이다.

최근 인터넷, SNS 등 온라인 매체가 활성화됨에 따라 인쇄 매체의 중심인 신문의 위기가 자주 거론된다. 특히 지방신문은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지역언론이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내세우는 것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대·심화되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산업이 종이를 통한 인쇄 매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바일 미디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언론재단의 언론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독자들이 종이신문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최근 3년간 약 10% 줄어든 반면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기기로 신문기사를 본다는 응답은 30%이

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인쇄매체에서 미디어매체로의 교체가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의 등장으로 신문의 존립은 어려워지고, 그 중에서도 지역신문의 위상은 더욱 위태롭기만 하다.

이러한 지역신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변화하는 환경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지역시장과 독자로부터 그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또한 지역언론의 한 몫인데, 이 때 중요한 것이 콘텐츠다. 가치 있는 콘텐츠는 매체가 아무리 다양화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 즉 가치 있는 콘텐츠가 언론 생태계의 강자로 남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신문에서 가치 있는 콘텐츠라면, 바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구수한 이야기와 애환일 것이다. 이것은 중앙의 신문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을 충분히 갖게 한다. 지역민들이내고장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찌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그 정점에서 있는 것이 유니크한 콘텐츠인 것이다.

둘째로, 착한 뉴스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

역의 이야기라고 해서 수도권의 독자가 읽지 않으란 법은 없다. 비록 독자가 1회성으로 기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즐겁게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독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매체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지역의 소식을 간단하면서도 의미 깊게 접하고, 신문을 통해서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지역신문만의 역사와 스토리를 갖춰야 한다. 중국이 뛰어난 것은 인구와 자원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라는 상품도 갖추었기 때문이다. 사람 냄새 나는 지역신문이, 그 지역의 특별하고도 유니크한 역사와 스토리를 갖는다면, 이것을 접하는 독자들은 상상만해도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매일 아침 책상 위에 지리한 조간 신문들을 보면서, 항상 유니크한 콘텐츠로 시선을 끄는 신문을 쫓으려면, 역시나 지역신문들이나, 사람 냄새 나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역신문을 베스트보다 유니크로 생각하는 이유다. 앞으로도 베스트보다 유니크한 콘텐츠로 성장하는 지역신문이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이다.

社 說

광주U대회도 북한선수단 참가 기대 크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북한이 남한에서 개최하는 국제 종합스포츠대회에 선수단을 보내는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2003년 대구하계U대회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 올림픽 위원회는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이 참가한다는 것을 아시아올림픽 이사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참가 결정은 남북 간 대치 국면 속에 긴장 완화와 교류 증진의 촉매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의 참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수단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으며, 여야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2015 광주하계U대회의 북한팀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해온 광주시로서는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가 성사될 경우 이 흐름이 U대회로 이어질 수 있어 성공 개최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아시아경기대회는 말 그대로 아시아에 국한되지만 U대회는 세계 젊은 이들의 스포츠 축제로서 지구촌의 이목을 끌게 되고, 그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남북 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 참가의 U대회 참가는 남북이 대화를 통해 화해·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국가간 대립관계일수록 상황을 완화시키는 데 스포츠가 활용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광주하계U대회 참가를 공식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 간에 화해 분위기가 성숙된다면 남북 단일팀 구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검찰 ‘관피아 척결’ 용두사미 그쳐선 안 돼

광주지검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노출된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의 폐해를 도려내려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차장검사를 본부장으, 특수부장·형사2부장을 비롯한 검사 10명과 수사관 41명 등 53명으로 꾸러졌다. 전체 검사 58명 중 5분의 1가량이 참여하는 그동안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머드급 수사팀인 셈이다. 관피아 척결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검찰은 감독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 또는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사·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관피아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철도·원전 등과 관련된 공공 인프라 분야의 비리가 최우선 수사 대

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지자체의 안전관리와 감독, 인·허가, 예산·조달 관련 기능이 관피아로 인해 훼손되거나 약화되는 부문을 비롯 민·관 유착 비리도 중점 수사한다.

당장 광주시와 전남도의 산하기관 및 관련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시의 경우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3분의 1이 공무원(공기업 포함) 출신이며 전남도는 출연기관 19곳 중 퇴직 공직자가 수장인 곳만 5곳에 이르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공무員 의식이 바뀔 때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적폐(積弊) 근절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 표명 이후 급조됐다는 점에서 끈기를 갖고 수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검찰의 치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옛 철길을 걷다가...



김 은 경
광주지검 검사

광주지검으로 부임한 후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사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관사까지는 30분 정도 걸리니 출퇴근을 하면서 고즈넉이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번 셈이다. 늘 앉아서 일하느라 운동이 부족한 기색이 역력한 팔을 볼 때마다 격정스런 말씀을 보태시는 부모님 탓이기도 하고, 운동을 시작한 후 지방 가득한 땃살 밑에 복근이 살아 꿈틀거린다면 자랑하는 남편한테 살짝 경쟁심이 느껴지기도 해서 시작한 아마도 옆자리에 앉아 있는 광주 토박이 검사가 알려준 ‘옛 철길’이란 참 걷기

좋은 길 덕분인 듯하다. 지난 몇 달 동안 옛 철길 주변의 나무들은 옆 집 갓난아기처럼 볼 때마다 쑥쑥 자라는 것 같더니 지금은 훌쩍째로 노란 리본을 달고 의젓하게 서 있다.

몇 주 전쯤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려고 주말에 나왔다가 해 질 무렵 퇴근하던 길에 노란 리본과 촛불로 옛 철길 주변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요즘에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을 그냥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팽목항에서는, TV를 보다가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왔다는 아주머니들과, 인터넷에서 어떻게라도 힘을 보태야겠다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왔다는 젊은 청년들이 나와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한 때는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아 전남도에서 자원봉사를 자체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할 정도였다고 한다. 집 안에 앉아 팽목항에서 들리는 뉴스에 놀라거나 우울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 하던 일을 접고 팽목항으로 달려가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웃가지를 빨아주고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

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재난 끝에서 작은 희망을 보여주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 생각에 옛 철길에서 노란리본을 장식하고 있는 아주머니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담긴 작은 목례를 보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은 모두 지나간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다. 검사들은 매일매일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나 잘못을 되짚으면서 실제적 진실을 찾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건관계인들의 과거는 검사들에게는 현재가 된다. 결국 검사들에게 최선을 다해 오해를 사는 방법이란, 사건관계인들의 과거를 끊임없이 되새겨 과거를 있는 그대로 재구성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합수부에서는 그 날 이후 매일을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으로 돌아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제대로 가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공자님 말씀 중에 “미래를 결정짓고 싶

다면 과거를 공부하라”는 말씀이 있다. 공자는 역사적 성찰이야말로 인간의 길길을 밝혀주는 믿음직한 지표라고 믿었기 때문에 ‘성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고 심판하지 않으면 진보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보면 검사들이 끊임없이 집적하며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있는 개개인의 역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성찰하고 심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지어 나가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작 합수부에서 끊임없이 2014년 4월 16일로 돌아가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과 책임을 가려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조만간 광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인 세월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는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월호의 침몰이라는 비극적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정한 성찰과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無 等 鼓

하퍼 리의 ‘앵무새 죽이기’라는 소설은 대공황시대 미국 남부 앨라배마를 무대로 하고 있다. 마을의 흑인 청년 톰은 어느날 백인 여성 마엘라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다. 실제로는 마엘라가 유혹한 것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배심원들도 흑인이라 편견 때문에 톰의 얘기를 믿지 않는다. 에디커스라는 능력있는 백인 변호사의 완벽한 변호와 톰이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지만 배심원들은 결국 유죄

앵무새 죽이기

판결을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톰은 교도소 이송 도중 도주한다. 소설에서 ‘앵무새 죽이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해하고 우호적인 것을 죽이는 것은 죄라는 것이다. 작가는 에디커스의 입을 빌어 농작물을 해치지 않고 노래까지 들려주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한다.

몇 개월전 사석에서 만난 광주의 한 변호사는 ‘앵무새 죽이기’를 이야기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꼭 진실은 아니라고 했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로 유명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다. 그는 인화학교 사건도 소

설과 진실은 일정 부분 다르다고 말했다. 대중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폭력조직 두목으로 알려진 여운환씨가 최근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이란 책을 냈다. 그는 책에서 자신이 전국구 두목으로 알려진 계기가 됐던 흥준표 검사(현 경남지사)와의 악연과 국민의 정부 최대 스캔들인 이윤호 게이트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씨는 한때 주먹세계에 몸담았지만 건실한 사업가인

자신을 흥 검사가 출세시켰다는 공명심에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이때의 오

명이 빌미가 돼 이윤호 게이트 사건에선 또 다른 검사에게 거물급 로비스트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두번에 걸쳐 8년2개월간 감옥에 갇혀 지냈다. 비뚤어진 대한민국 검사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를 피부로 느끼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였다. 여씨와 검사의 말 중 우리는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 1995년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모래시계’의 진실이 궁금해진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